

DSC-M1



셀프 카메라의 진수를 보여주마

캠코더가 똑똑해지고 있다. 아니 디지털카메라가 똑똑해지고 있다. 휴대성을 강조하는 추세에 맞게 군살을 빼서 크기가 작아지는 것은 기본이고 합쳐야 산다는 컨버전스 시대에 맞게 서로의 경계를 넘어 기능을 꿀꺽 삼켰다. 소니코리아의 사이버샷 DSC-M1 역시 눈길을 끄는 컨버전스형 제품 가운데 하나다. DSC-M1의 액정은 슬라이드 방식을 채용, 왼쪽으로 열리고 좌우로 270도 회전시킬 수 있어 언뜻 보면 요즘 유행하는 휴대전화를 닮았다. 무게는 190g으로 미니켓과 비슷한 수준이며 크기도 작아 휴대성이 뛰어나다. 기능을 보면 CCD는 2.4분의 1인치 크기이며 509만화소를 지원한다. 최대 해상도는 2,592×1,944로 웬만한 디지털카메라 뺨치는 수준이다.

글 권경희 기자 · 사진 이혜성 기자

‘디카야, 휴대폰이야?’
 좌우로 회전되고 위아래로 돌려 찍는 독특한 디자인의 디지털카메라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소니코리아가 최근 출시한 ‘사이버샷 DSC-M1’은 좌우로 열리고 닫히는 세로그립의 디자인과 동영상에 대폭 강화한 제품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디지털카메라나 캠코더의 어떤 형상도 따르지 않은 독특한 디자인이 매력적이다.

마치 휴대폰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으로 전체적인 색상은 짙은 회색 빛, 일반적으로 채용하는 무난한 실버 칼라보다 더 고급스럽고 단단한 이미지를 주는데 성공했다. M1의 바디라인은 휴대폰의 디자인과 비슷하지만 그 사이즈는 요즘 나오고 있는 휴대폰보다는 약간 큰 PDA폰에 비견된다.

고급스럽고 단단한 이미지에 기본 기능 충실

이 제품이 처음 선보였을 때 대부분의 디지털카메라와는 완전히 다른 형상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완전히 새로워진 디자인에는 다 이유가 있다. 정지화상과 동영상을 가장 자연스럽게 촬영하기 위한 것.

캠코더로 정지화상을 촬영하거나 디지털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할 때 웬지 어색했던 이유는 바로 주된 기능을 위해서만 디자인된 기기의 특성 때문이다. DSC-M1은 이러한 측면에서 두 가지의 기능을 모두 다 완벽하게 소화해내기 위한 디자인이다.

그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 기능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DSC-M1은 기본 기능에 충실한 디카다. 510만 화소, 광학 3배줌에 최대 1cm까지 접사가 가능하다. 또한 소니의 첨단 영상처리 엔진인 ‘리얼 이미징 프로세서’를 채용해 깨끗한 영상과 빠른 반응속도를 보여준다.

DSC-M1의 기본은 디카지만 동영상 기능이 한층 강화된 소형 디지털캠코더가 되기도 한다. 양방향 멀티미디어를 구현하는 동영상 압축 방식인 MPEG4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초당 30프레임의 고화질로 동영상을 기록할 수 있다. 사진이 촬영됨과 동시에 촬영 전 5초와 직후 3초의 순간이 동영상으로 기록돼 기존 촬영에서 놓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도 동영상에 남기는 하이브리드 기능도 DSC-M1의 특징이다. 여기에 최장 8시간에 이르는 배터리 스테미너는 사용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충분하다.

전반적인 형태를 살펴보면, 전방 상단에는 칼짜이즈 테사 렌즈가 장착돼 있으며, 렌즈 프로테터로 보호하고 있다. 렌즈의 우측으로는 내장 스피드 라이트가 장착돼 있다. 스피드 라이트 아래쪽으로 포커스 보조 광 램프가 장착돼 있다. 후면에는 좌측의 90도로 움직이는 회전 LCD 모니터가 장착돼 있다. LCD모니터는 2.0인치로 시원스러우며, 모니터의 좌측에는 리뷰 컨트롤 버튼이 장착돼 있다. LCD모니터의 반대 면에는 스테레오 마이크가 장착돼 있다. LCD모니터의 위쪽으로는 메모리 스틱을 장착하는 부분이 오픈돼 있는 형태로 위치하고 있으며, 뒤쪽으로 스피커가 장착돼 있다.

LCD모니터 아래쪽으로는 스틸컷용 셔터 버튼과 동영상용 셔터 버튼이 동일한 크기로 장착돼 있고 두 개의 셔터 스위치 사이에 줌 레버가 있어 광학 3배 줌을 컨트롤한다. 중심부 아래쪽에는 4방향키가 장착돼 있어 매우 다양한 기능들을 손쉽게 컨트롤하도록 고안돼 있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혁신적이지만, 사용기로서는 개선돼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한 손으로 잡게 고안된 제품이지만 한 손으로 찍게 되면 심하게 흔들린다는 것. 그래도 셀프카메라의 매력이 넘치는 카메라 입에는 분명하다.

동영상·디카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았다

DSC-M1의 본체 LCD부를 회전시키면 바로 전원이 켜지며 렌즈 덮개가 열리며 촬영준비가 되었음을 알려준다. DSC-M1에 채용된 렌즈는 칼짜이즈 바리오 테사 광학 3배 줌 렌즈이며 동영상을 촬영하면서도 광



확 줌으로 효과적인 프레임링을 할 수 있다.

기존 캠코더를 만들던 소니답게 자동 노출과 오토 화이트 밸런스, 그리고 멀티 자동 초점 방식 등 대부분의 기능도 정확하고 빠르다. LCD의 크기가 2.5인치로 캠코더에 쓰이던 그것과 같아 선명한 영상을 보여준다. LCD 바로 옆 부분에는 사진 촬영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따로 버튼을 제공해 사용자 편의를 돕는다.

동영상 기능은 따로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훌륭하며 사용자를 위한 각종 편의 기능들도 M1의 가치를 더해준다. 하이브리드 촬영과 5초 간편 동영상 촬영은 M1의 훌륭한 기능들 가운데 백미에 속한다.

기존에 출시됐던 동영상 기능 강화 디지털카메라들의 경우, 동영상 기능에 편중된 나머지 정작 촬영 기능들의 많은 부분들이 소외당했었지만 M1은 그 두 마리의 토끼, 모두를 잡아냈다. 특이한 기능에 사용자의 생활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편의 기능들이 물론 느껴지는 카메라이

다. 이 제품은 최대 해상도 640×480에 초당 30프레임으로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촬영한 동영상은 MPEG4 방식으로 압축 저장하며 줌 기능은 광학 3배를 쓸 수 있다.

제품은 블랙톤의 금속성재질로 이뤄진 본체덕분에 상당히 카리스마가 있는 디자인을 보여 주고 있다. 하나의 디지털카메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고급스러운 명품을 소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제품이다.

제품의 본체는 슬라이드 되는 액정화면 부와 버튼 및 렌즈가 달려있는 부위로 나뉘어져 있으며 평상시에는 액정화면을 닫아두었다가 촬영 시에 이 화면을 90도로 슬라이딩 시켜 촬영을 곧바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별다른 전원의 on/off가 필요 없이 액정화면을 90도 슬라이딩시키는 것이 전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매우 획기적인 아이디어다. 그만큼 빨라지고 정확해졌다(사실 매우 스타일리쉬한 개념은 바로 여기





에서 출발된다는 것. 액정화면 부는 180도로 다시 꺾여지기 때문에 셀프촬영을 할 때 매우 쉽게 전환이 가능하다. 이 기능은 카메라폰의 액정을 상상하면 보다 이해가 쉬울 것이다.

셀프 사진 욕구 충분히 충족

대형 액정 화면의 자유로운 회전은 좀더 편한 자세로 사진의 구도를 잡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셀프 사진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많이 충족시킬 수 있다. 액정이 크면서 회전 가능한 제품을 원했던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기존 제품과 차별되는 부분이 강화된 동영상, 커다란 액정의 회전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진과 동영상 촬영 버튼이 아예 따로 있다. 여기에는 눈에 띄는 부분은 정지 화상 촬영에서의 하이브리드 모드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카메라와 캠코더 기능을 섞어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 녹화 기능은 정지 화상과 동영상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다. 동영상 기능이 강화된 제품답게 정지 화상 촬영과 동시에 전후 8초간을 동영상으로 촬영이 가능하다. 정지 사진을 찍을 때의 에피소드라든지 짝막한 이야깃거리를 같이 담을 수 있다. 사진을 찍기 전에 촬영 전 5초, 촬영 후 3초 동안 동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것. 하이브리드 촬영은 이전 제품들처럼 '리얼 이미징 프로세서' 탑재 등으로의 빠른 기동 속도와 같은 기본 기능을 포



함하면서 더해진 기능이다. 단순히 동영상만 강화된 제품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능이 서로 한데 묶인 제품이다.

디지털 컨버전스 제품의 이점은 굳이 카메라와 캠코더를 따로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제품은 아예 기능면에서 하이브리드를 이뤄내면서 카메라와 캠코더의 경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또한 이로써 후에 동영상 촬영과 함께 그때그때 정지 화상도 함께 찍을 수 있는 완벽한 하이브리드 촬영 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DSC-M1은 현존하는 최고의 'FUN카메라' 라고 할 수 있다. 가격 면에서는 결코 토이 카메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이브리드 동영상이 주는 재미와 그 매력적인 디자인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캠코더에는 훨씬 못 미치는 비디오 성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성도 뛰어나다. MPEG4 인코더로 확실히 적은 메모리로 장시간을 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촬영한 동영상을 에니콜 미디어 플레이어나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로도 볼 수 있다. wmv로 변환해 친구에게 e메일로 보낼 수도 있다. 그야말로 '혼자 놀기의 진수' 를 보여주는 카메라다.

DSC-M1의 또 하나의 강점은 스테레오 녹음 기능이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동영상 감상시 스테레오의 느낌은 모노와는 확연하게 다르다. 더구나 마이크 감도 좋아서 소리를 매우 잘 잡아낸다. 콘서트 등 공연장에서 동영상을 찍을 때 그 진가를 더욱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